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충성자만이 성공한다.
2. 충성자만이 자기 재능과 능력을 다 쓰며 행한다.
3. 충성자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한다.
4.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는 자만이 자기 달란트를 충성에 다 쓰게 된다.
5. 저마다 충성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잠재능력을 쓸 줄 알아야 된다.
6. 하루는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어느 골짜기에 내가 원하는 돌이 있다고 알려 주시면, 주워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을게요.” 했다. 이에 성령님은 “네가 원하는 돌이 있어도, 없다고 한다.” 하셨다. “왜요?” 하고 물으니, 성령님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못 찾는 돌이 있다. 가령, 땅에 깊이 묻힌 돌은 못 찾는다. 이런 돌은 못 찾고 고생만 하기에, 애초부터 없다고 한다. 찾을 수 있는 돌만 있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잠언을 받고, 영하 13도 날씨에 돌을 찾으러 갔다. 요즘 산수 경석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돌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골프차를 타고 낙타바위 옆 경사진 길을 달려가는데, “있는 것

중에 찾아라.”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들렸다. 순간 옆을 보니, 감나무 밑에 깊이 박혀 있는 돌이 눈에 띄었다. 내려가서 자세히 보니, 땅 깊이 박혀 있는 산수경석이였다. 길이는 9m다. 충성으로 행하니, 성령님은 원하던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7. 근본을 아는 눈을 뜨고 보아야, 깨닫고 보게 된다. 그때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된다.

8. 삶의 눈을 뜬 자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한다.

9. 봤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들었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 행실을 보면,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

10. 주를 깨달은 자는 그 행위로 알 수 있다. 주를 대하는 것을 보고 안다.

11. 주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라. 주를 제대로 알아야, 영생도 휴거도 제대로 된다.